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선거 입후보 등록서

입후보구분	회 장	0	수석 부회장		감사	
-------	-----	---	-----------	--	----	--

성 명	(한글) 장 병 관	사 진	
	(한자) 蔣 炳 寬		
	(영문) Jang, Byoungkwan		
소 속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생년월일	1957. 5. 12
학 력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 졸업(농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졸업(조경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졸업(공학박사)		
주요경력 (입후보 자격에 부합한 본 학회 활동 포함)	현재 (사)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 현재 (사)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 특별위원장 현재 농촌개발사업 자문 및 평가위원 (사)한국조경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사)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장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 총괄계획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 대한토지공사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총괄조경가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학교 연구교수		

출마소견서

(본면 포함 2매 이내)

존경하는 한국조경학회 회원여러분께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회원 및 임원 그리고 고문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작년 조경학회는 40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40세의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혹되지 않는 삶 즉 완전한 삶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조경은 안정 속에 변명을 추구하여야 하는 시기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경학회는 김한배 회장이 주도하여 조경의 정체성과 조경인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조경현장 및 조경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회는 조경산업 진흥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법제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맺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회와 조경분야의 큰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삶의 추구로 조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조경분야의 일을 타 분야가 독점하려고 하는 영역다툼과 조경분야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기타 여러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조경에 대해 일반인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조경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은 아직도 아전인수 격으로 조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많은 부분에서 조경의 가치와 사회기여도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또 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현 정부는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중에서도 환경복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의 성취는 녹색복지를 통해만 가능합니다. 즉 환경복지와 녹색복지는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환경복지정책의 추진은 조경의 또 다른 창조적인 분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경이 환경복지시대를 여는데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세대 조경가의 지속적인 사회진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이 여러 다른 분야의 학문 속에서 즉 건설, 환경, 관광, 농촌개발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안정된 전문영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끊임없이 노력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조경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경분야의 연구를 강화하고 타 인접 분야와 교류 확대 및 공동 연구과제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연구는 융·복합 연구 또는 학제간 연구가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학회가 조경분야 전반에 대한 많은 현안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구에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조경의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경업의 생존과 영역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월 임시국회 개회 시 조경산업 진흥법이 통과될 것을 가정하여 올 한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산학 균형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경연구소 설립하여 조경이 불이익을 받는 모든 부분에 대해 실천적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해외사업 연구팀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업체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장기적 비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에서 화두가 되는 개념들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해 녹색기반조성과 국가도시공원조성법의 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은 몇 해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며, 녹색기반조성은 환경복지와 연결시켜서 국토부 녹색도시과가 올해부터 적극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DMZ 평화공원은 앞으로 통일부와의 대화채널을 만들어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경의 인식이 일반인에게 미칠 수 있도록 시민참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조경현장에도 조경은 문화적 행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며, 그 변화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들의 지원을 받으면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고 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공약을 잘 실천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학회 업무는 수석부회장에 많은 부분 위임하고자하며 대신에, 저는 조경운동과 대외업무 그리고 조경의 현안해결을 중심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5년 이후 학회 간사, 이사, 상임이사, 편집이사, 편집위원장 그리고 수석부회장을 하면서 학회에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은의 의미로 앞서 언급한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한국조경학회는 조경분야의 소중한 회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학술단체로 조경분야의 근간의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회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과 회원 개인들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고려해서 학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갑오년 올 한해 하시는 일,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장병관 배상

서 약 서

본인 장 병 관 은(는) 금번 (사)한국조경학회
제22대 회 장 후보로 등록함에 있어서
본 학회의 선거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위반할 경우 본 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분에도 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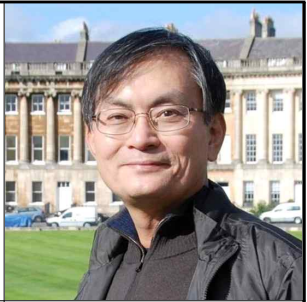
2014년 2월 14 일

입후보자 장 병 관 (인) 

(사)한국조경학회 2014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선거 입후보 등록서

입후보구분	회 장	○	수석 부회장		감사	
-------	-----	---	-----------	--	----	--

성 명	(한글) 김 성 균	사진	
	(한자) 金 晟 均		
	(영문) KIM SUNG-KYUN		
소 속	서 울 대 학 교	생년월일	1956년 2월 18일
학 력	1981.08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졸업 1984.05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조경학 석사 1987.05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예술학 석사 1988.08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도시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1994~현재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2012~현재 : 아시아문화경관학회(ACLA) 회장 2009~현재 : 서울대학교 도시녹화연구소 소장 2011~2012 : 한국농촌계획학회 회장 2009~201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008~2009 : 2009 인천 세계조경가협회 아태지역(IFLA APR) 총회 조직위원장 2007~2009 : 한국조경학회 국제담당 부회장 2007~2012, 1997~2000 : 세계조경가협회(IFLA) 이사, 한국대표 2007~2012 : 세계조경가협회 아태지역(IFLA APR) 문화경관위원회 위원장 2006~2007 : 한국조경학회 여름조경학교 교장 2005~2008 :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999~2002 : 세계조경가협회 동부지역(IFLA ER) Treasurer 1998~1999 : 1999 양양 세계조경가협회 동부지역(IFLA ER) 총회 조직위원회 총괄위원장 1994~2004 : 한국조경학회 컴퓨터응용분과 위원장 1993~2008 : 한국조경학회 상임이사, 국제담당이사, 이사, 편집위원 1991~1992 : 1992 세계조경가협회(IFLA) 총회 조직위원회 학술분과 위원장 1989~1994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출마소견서

존경하는 한국조경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김성균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간의 30년간 학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한국조경학회 제22대 회장에 입후보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조경학회 국제담당부회장, 국제담당이사 및 상임이사, 조경직제추진위원, 여름조경학교장, 컴퓨터응용연구회장, 공원연구회장, IFLA 이사 및 한국대표, IFLA APR 문화경관위원장 및 Treasurer, 아시아문화경관학회(ACLA) 회장, 농촌계획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국제담당이사를 맡으면서 한일, 한중세미나를 ‘한중일세미나’ 하나로 통합시켰고, ‘1999 양양 및 2009 인천 IFLA APR 총회’를 유치하고 조직위원장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경험이 보람으로 간직됩니다. 비록 무산되긴 하였지만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기 위한 ‘2018 세계 IFLA 총회’도 최선을 다해 유치했습니다.

조경직제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설조경직과 산림조경직 국가공무원 신설에 기여할 수 있었고, 여름조경학교장으로는 우수한 조경학과 학생들이 전원 무료로 입학하여 실무와 이론을 겸비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창립 이후 훌륭한 선배님들의 비전과 헌신, 열정이 넘치는 회원들의 노력으로 한국조경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술단체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국내건설경기의 위축 여파로 조경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조경관련업체는 구조 조정과 인력의 감축 중이며, 관련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 국제적으로는 2018 IFLA 총회유치 포기이후 한국조경학회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그동안 쌓아온 해외의 발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어려운 조경계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위기상황의 관리에 적합한 학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통일에 대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단순한 국제교류의 차원을 넘어 능동적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IFLA 등을 통해 세계 여러 국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아시아문화경관학회(ACLA)를 설립하여 회원수 500여명인 아시아 최대 조경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국조경계가 진출할 수 있는 바탕다짐에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디아 등에 한국조경계가 진출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국제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고, FTA 등 국제적인 여건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조경계가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조경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경실무 영어실력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조경학과 졸업생들이 학위와 능력에 맞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곧 다가올지도 모르는 통일 및 남북관계개선에 대비하여 북한관련 조경분야에 대한 연구를 특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미래 통일한국의 조경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조경관련 법규의 정비 등 그동안 추진사업들을 계승 발전시키며, 인접 분야의 도전을 극복하고 상생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동안 훌륭히 추진해오던 조경관련 법규의 정비 등 여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최근 도시숲법, 수목원·정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농업법, 산업디자인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인접분야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조경계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장과 관계자를 만나 국가와 조경계의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연관분야와 적극 연계하되 조경의 독자적 영역을 발전시키는 화이부동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셋째, 조경계의 위상을 높이고 영역을 넓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직렬에 시설·산림조경직이 신설되었으나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공채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나 조경직 공무원 채용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힘써서 중앙 및 지방의 조경직 공무원 채용의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분야와 같이 당연히 우리분야로 알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외적인 홍보의 부족에 기인합니다. 이를 위해 학회가 국토 및 도시, 조경관련 정책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내에 ‘조경정책·제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조경 관련 이슈가 제기될 때 마다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회의 사회적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 지속적 사회기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술수준과 많은 해외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조경계의 기반을 닦았던 초기세대 고급 은퇴 인력들이 새로운 국내외 조경프로젝트의 감리, 관리, 자문, 고급기술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인력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회 임원선거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회의 규정에는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대행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여 기득권 그룹이 선거 전략에 따라 회장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에 유리한 이사진을 선거전략으로 임기마다 추가하여 현재 조경학회의 이사진이 400명 이상이나 됩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는 120명, 건축학회는 334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임원선거방식은 뜻있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학회 활동 및 임원선거에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분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조경학회 회원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조경학회 제22대 회장으로 출마를 결심하고 선후배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가 그동안 소통의 부족함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극복하고 당선되어 학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큰 믿음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약 서

본인 김 성 균 은 금번 (사)한국조경학회
제22대 회장 후보로 등록함에 있어서
본 학회의 선거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위반할 경우 본 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분에도 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입후보자 김 성 균 (인)



(사)한국조경학회 2014선거관리위원회 귀중